

박성현, LPGA 투어 데뷔전 '훌륭했다'

사흘 연속 68타 16언더 'HSBC 위민스' 단독 3위 차지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에서 슈퍼 루키임을 입증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박성현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16언더파를 치며 '골프 여제' 박인비(29),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휩쓸고 본격적인 미국 무대에 뛰어든 박성현은 LPGA 회원 자격으로 치른 첫 대회라는 부담을 안고도 대회 기간 내내 상위권을 유지하며 우승 가능성을 엿보았다.

박성현은 나흘 동안 매일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LPGA 투어에 초청선수 신분으로 7개 대회에 출전에 준우승 한 차례 포함 6개 대회에서 '톱5' 안에 들었던 것과 과연 얼마나 빨리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박성현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여러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성현은 미국 진출 선언 후 지난해 연말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현지 적응 훈련과 함께 새 시즌 준비에 돌입했다.

자신을 가르칠 코치는 물론 대회 내내 호흡을 맞출 캐디를 새롭게 영입했다.

클럽까지 바꾸면서 적응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낮선 환경과 언어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당초 1월 개막전인 '퓨어 실크 클래식'에 출전하려 했으나 2월 하순에 열리는 '혼자 타이틀'로 데뷔 시기를 늦췄다.

이마저도 대회에 초청 받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데뷔전을 한 주 더 미뤘다.

여러가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성현은 데뷔전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단독 3위를 했다.

대회 전 '톱5'를 목표로 했지만 이를 훨씬 상회하고 남은 좋은 성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최종일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2014년 US여자오픈 우승자이자 통산 5승에 도전하는 마벨 위와 함께 경기하면서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박성현의 기세에 눌렸는지 리디아 고와 마벨 위 모두 한 타도 줄이지 못하는 부진을 겪으며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박성현은 장기인 장타를 적극 살려 공격적으로 그라운드를 공략했다.



박성현이 지난 5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파이날라운드 3라운드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더블 보기 1개와 보기 7개를 범했지만 매 라운드마다 버디 5개 이상을 잡아내며 상위권을 지켰다.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새 클럽에 대한 적응에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영어에 대한 부담도 경기력에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어느 '특급 신인' 이상의 성공적인 데뷔전으로 치른 박성현으로서의 자신감이

는 무기를 새롭게 장착했다. 박성현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며 시즌을 다음 대회로 돌렸다.

LPGA 투어는 이번 주 대회가 없다. 박성현이 미국 본토에서 펼쳐지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근기자

코카콜라,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주자 모집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 '코카콜라'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주자 모집 이벤트를 벌인다.

코카콜라는 오는 5월31일까지 모바일앱 'CokePLAY'(코크 플레이)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한다.

코크 플레이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이달 중 출시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천에 도착하는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2018년 2월9일까지 진행된다.

2018년에 해당하는 구간을 돌며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전국 곳곳에 전파할 예정이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자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가 되는 것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인 코카콜라는 성화봉송 주자 모집뿐 아니라, 다양한 올림픽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짜릿한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FIFA U-20 월드컵, 오늘부터 개최지 최종 실사

국제축구연맹(FIFA)이 국내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최종 실사에 나선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와 FIFA는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 개막에 앞서 오늘부터 3박 4일간 대회 최종 실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직위와 FIFA는 이날 분야별 미팅을 진행한다. 인천을 시작으로 8일 제주·전주, 9일 대전·천안, 10일 수원 순으로 실사에 나선다.

FIFA 실사단은 총 28명이다. 리아는 마틴 FIFA U-20 월드컵 대회운영총괄을 비롯해 경기, 의정, 마케팅, 티켓팅, TV, 숙박, 안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최종 실사에서는 대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조직위와 FIFA 실사단은 실사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 분야별 실무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15일 수원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본선 조추첨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은 오는 5월 20일 개막해 6월 11일까지 국내 6개 도시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

박인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정상... 세계랭킹 톱10 복귀



박인비는 5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19언더파 269타로 정상에 올랐다. 복귀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6일(한국시간) 발표된 플래티넘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5.62점으로 지난주 12위에서 3계단이 오른 9위를 차지했다.

복귀 불과 2개 대회 만에 우승 거머쥐며 통산 18승 달성

복귀 두 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29·KB금융그룹)가 두 달여 만에 세계랭킹 톱10에 복귀했다.

박인비는 6일(한국시간) 발표된 플래티넘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5.62점으로 지난주 12위에서 3계단이 오른 9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전남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19언더파 269타로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이후 8개월 가량 투어를 떠났던 박인비는 그 사이 세계랭킹이 10위권 밖까지 밀렸다.

지난주 '혼자 LPGA 타이틀'을 통해 복귀한 뒤 불과 2개 대회 만에 우승을 거머쥐며 통산 18승째를 달성했다.

세계랭킹도 지난해 12월 둘째주 이후 2개월여 만에 톱10 복귀다.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전인자(29)는 지난주 공동 37위에 머물며 평산신(중국)에 3위 자리를 내주고 한 주 만에 다시 4위가 됐다.

렉시 톰슨(미국)이 7위로 떨어진 사이 장하나(25·BC카드)와 유소연(27·메디힐)은 각각 1계단씩 상승하며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양희영(28·PNS창호)은 8위로 제자리를 지켰고 김세영(24·미래에셋)은 1계단 하락하며 10위에 턱걸이 했다.

최근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여자골프는 톱10에 지난주보다 1명 늘어난 6명이 포진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 개막전 '다이킨오키드 레이디스'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안선주는 6계단 점프하며 27위를 했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72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했다.

HSBC 위민스에서 2위를 차지한 에리아 쭈타누간(뉴질랜드)은 2위를 유지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배설,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